

## 이슈도 감동도 없는 '그들만의 경선' 민주당 공천 마무리 수순 민심 '싸늘'

### 총선 D-37 뉴스초점

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후보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어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싸늘하다.

〈관련기사 3, 4면〉

지역 민심이 코로나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집중된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 후보 경선이 어떠한 이슈도, 감동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그들만의 경선'에 그쳐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권리당 원 50%+시민 50%'로 치른 민주당 경선에서 시민 참여율은 한 자릿수 내외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시민참여경선의 의미가 반감됐다. 반면, 권리당원 참여율은 대부분 지역에서 40%를 넘어서는 등 선거 브로커들이 행행하는 조직 대결 양상이 펼쳐졌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공천=당선'이라는 구도가 형성, 곳곳에서 과열 경쟁 양상이 전개되면서 새로운 바람을 기대했던 민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중앙당 공관 위에는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각종 자료들이 봇물을 이뤘고 지역에서는 예비 후보들간의 이전투구가 곳곳에서 펼쳐졌다. 광산 갑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 동남 갑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신천지 연 관설 유포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에서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경선 지역구는 동남갑, 북구을, 광산

### 광주·전남 시민 참여율

한자릿수에 그쳐

선거 브로커 활개 이전투구

광산갑·을 등 4곳 재심 청구

재심파라 후폭풍 상당할 듯

무소속 벨트 형성 뻗

총선구도 큰 변화 예상

갑·을 등 4곳에 이른다.

특히, 본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고소·고발이 난무한 것은 물론 선관위가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도 상당한 상황이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들도 각종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지역 정치권에선 재보궐 선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재심을 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여기에 호남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할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심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중량감이나 미래 비전을 갖춘 인물들의 전진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선을 앞두고 광주 전략공천 얘기가 나왔지만 한 곳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갇힌 속 태풍'에 그쳤다. 뒤늦게 순천에 소방청 카드를 투입했지만

시기가 늦어지면서 논란만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경선이 '골목 정치인'들의 경쟁에 그쳤다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의 민주당 후보 진용으로, 변방으로 밀린 호남 정치의 복원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정치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들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해 결집하기 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봉숭아 학당'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총선 구도는 민주당 독주보다는 민생당과의 경쟁 구도와 함께 무소속 벨트 형성이 맞물리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생당 측에서는 민주당 초·재선의 원들만으로는 호남 정치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4기 민주정부 창출을 고리로 검증된 '인물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과 무소속 현역 국회의원들 간의 무소속 벨트 형성도 예상된다. 총선 구도에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경선은 한 마디로 흥행 실패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과열 경쟁 등에 따른 민심이 반은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이번주 전당원투표로 결정한다

###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한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구성에 참여할지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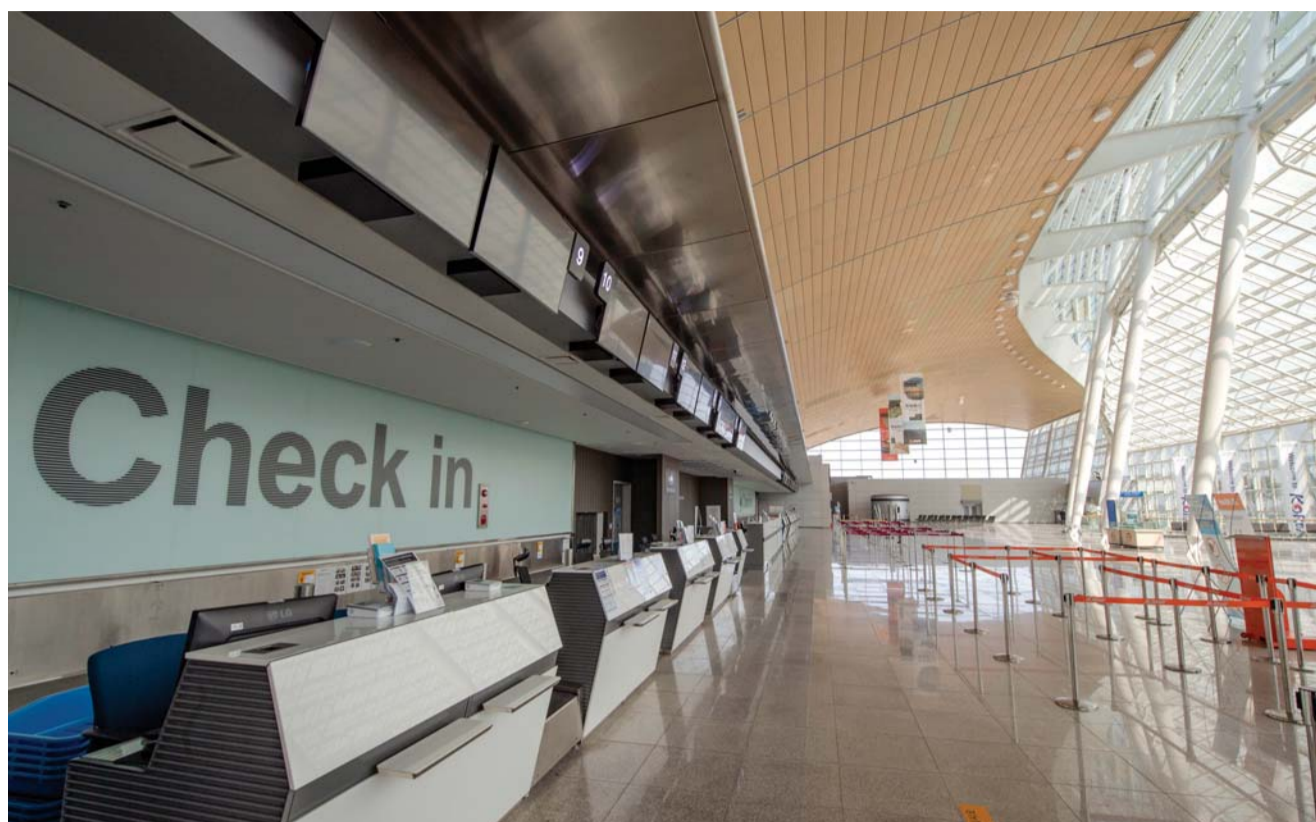
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플랫폼을 통한 전당원 투표로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면서 "투표와 결정은 이번주 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마스크 5부제 오늘부터 시행 ▶7면
- 건축물 열전 - 부안 청자박물관 ▶18면
- KIA 캠프 - 고졸 아티스트들이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당 빈 무안공항 8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의 카운터에 운항 중단 안내문이 걸려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급감한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1일 필리핀 클라크 편을 마지막으로 국제선이 모두 끊겼고, 이날 제주행 비행기를 마지막으로 오는 28일까지 전 노선 운항이 중단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코로나19 지역 확산 한풀 꺾였나

### 광주에 5일 만에 확진자 1명 관리대상 신천지 신도 전남은 1주일째 확진자 없어

국내 코로나19 발생 50일째를 맞아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2·3·6·8·14면〉 광주에서 5일 만에 확진자가 나오긴 했으나 관리대상인 신천지 신도였고, 전남은 일주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다행이지만,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바깥 나들이가 사실상 불가능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 사이엔 '마음의 병'이 확산하고 있다. 평소 이용하던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폐쇄 등에 따른 사람간 접촉이 차단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내에 완전종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각 구청과 함께 심리치유 활동에 나서고 있는 광주시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 현 행정력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에도 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유

지하되, '심리적(마음의) 거리 좁히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8일 광주시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후 50일째로 접어들었다. 광주에선 지난달 4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복지시설은 물론 무료급식소, 경로당, 노인일자리 현장 등 대부분의 교류시설은 한달 넘게 문을 닫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람들 접촉이 뜸해지면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마음의 병'이 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일선 구청과 함께 사회 생활이 단절된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각 구청에선 식사배달 등을 위해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할 때면 잠시 말동무 역할을 하는 등 소통의 끈을 이어가고 있으나, 관리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선 전화 등을 통한 '심리적 거리 좁히기' 만으로도 마음의 병 치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한 관계자는 "감염위험 상황에서 외부활동이 제한돼 외로움, 소외감이 찾아올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

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의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며 "화상 전화 등을 통해 주변 사람과 소통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광주시도 의료계 권고에 따라 시민들에게 '심리적 거리 좁히기'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실천하되, 마음의 거리만큼은 더 좁히는 운동이 활발해졌으면 한다"며 "오늘부터라도 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따뜻한 격려와 안부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후 4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79명이 늘어난 총 7313명이라고 밝혔다. 광주는 이날 1명이 추가돼 14명이며, 전남은 4명이다.

이날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22)씨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됐다 해제된 신도다. 광주시는 A씨가 뒤늦게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됨에 따라 신천지 밀접 접촉자 중 격리 해제자에 대해선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촉촉하게 레이어드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